

지방자치 이슈&인물

황현택 광주시의원

“자치분권시대 소통·협치 힘쓰겠다”

광주·전남 언론 최초로 TV를 출범시켜 융복합미디어를 선도하고 있는 광주매일신문이 창사 30주년을 맞아 광주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왕성한 활동을 이어 오고 있는 황현택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4)을 만나 특별 인터뷰를 진행했다.

▲제8대 광주시의회 전반기에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후반기에는 교육문화위원회에서 각각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기억에 남는 대표 발의안 등을 소개한다.

-여러 가지 대표 발의안 등이 있다. 광주 폭염 도시열섬 피해 지원 조례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인해 시는 최근 5년간 평균 폭염일 수가 증가하고 있다. 시장·자치구·시민의 책무, 폭염대응 기본계획 수립, 폭염취약계층 지원 등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보호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광주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안도 있는데, 코로나19처럼 전파력이 강한 감염병이 학교에서 발생 시 집단 발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학생과 교직원들 감염병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례로써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체계 제도화를 위해 발의했다.

▲10년 넘도록 초등학교 앞에서 교통봉사활동 전개하

도시철도 2호선 연계 교통망 조기 구축
서구를 스마트산업·비즈니스 중심지로

는 등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봉사도 많이 하고 있는데.

-지역 사회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활동하는 다양한 계층이 있다. 다양한 봉사 단체들도 있으며 남몰래 봉사하시는 분들 또한 많다. 저도 11년째 어린이들 등교 및 출근길에 비가 오나 눈이 와도 주민과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봉사를 하고 있다.

▲광주 서구 발전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데, 서구 출신 시의원 입장에서 서구의 경쟁력과 발전방향을 제시한다면.

-서구 인구는 2020년 12월말 기준 13만1천373세대에 인구 수는 29만6천576명이다. 서구는 광주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다. 시 청사가 들어서면서 광주 행정의 중심 지역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터미널은 물론 지하철도 2024년 완공 예정이다. 우선 서구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면 도시철도 2호선과 연계한 사통팔달의 교통망 조기 구축을 추진하겠다.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스마트산업·비즈니스 중심지로 개발하겠다. 또 서구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초·중·고·대학생들의 수요에 맞는 활성방안을 마련하겠다. 청년창업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식산업센터 건립도 추진할 계획이다.

▲유력 일간지 등 각종 언론 매체에서 내년 광주 서구

청장 예비 출마자로 거론되고 있는데 자신만의 강점은.

-서구 기초의원으로서 8년, 시의원 3년이라는 풍부한 의정 활동 경험과 주민자치위원장 및 학교 운영위원장



등 풀뿌리 민주주의의 수호자로서 모든 일은 현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한다. 지역의 문제점 파악을 위해 직접 발로 뛰고 현장을 방문, 시민들의 의견 청취 및 선제적 해결 방안 제시, 강력한 실행력, 추진력 그리고 활발한 소통 능력이라 말할 수 있다. 한 예로 전남비 산업건설위원장 시절 지역 청년들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이 된 광주글로벌모터스(GGM)의 성공적인 출발에 기여했다. 또한 주민 숙원 사업인 도시철도 2호선이 1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답보 상태였으나 시민단체, 노사단체, 환경단체 등과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착공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했다.

▲인생에서 롤모델로 삼고 있는 정치인이나 인사가 있다면.

-인생에서 롤 모델이라면 39년 전 돌아가신 어머니라고 생각한다. 어머니는 초등학교를 졸업하시고 초등학교 동창인 아버지와 결혼했다. 공무원인 아버지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저의 가정을 책임졌던 어머니는 항상 정직함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동네에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항상 도움을 줬던 기억이 많이 난다. 이때부터 정직과 봉사·배려가 몸에 배도록 생활했고 지역에서 주민자치 활동을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됐다고 생각한다. 정치적 롤 모델은 없지만 문재인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존경한다. 대통령 후보 시절 서구 서창동 경로당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 저와 성격이 비슷하고 강한 인내심과 어떠한 일이든 꼼꼼하

상생·화합의 지역공동체 건설 최우선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현안 추진 박차

이라 생각한다. 정부나 자치단체가 양질의 일자리와 안정적 소득 기반을 제공, MZ 세대가 건전한 노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자아실현을 하면서 개인적 부도 축적할 수 있는 경제적 구조 구축이 절실하다.

▲끝으로 광주시민과 서구 주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시민의 대표 기관인 시의원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것이 의무이며 시민들이 저에게 주신 막중한 임무라 생각한다. 시민의 삶은 코로나19라는 감염병으로 인해 위기를 맞고 있다. 시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고, 사회단체와 소통 강화에 최선을 다해 지역·계층간 갈등을 중재·조정하고, 상생과 화합의 지역공동체를 건설하는 데 온 힘을 기울이겠다. 또한 지역의 주요 현안 사업인 서구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공공의료원 설립, 지하철 2호선 개통, 광주형일자리(GGM), 광주트라우마 치유센터 등을 차질없이 진행해 시민에게 희망과 신뢰를 주는 방법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개발하겠다.

특히 시민의 대표 기관인 시의원으로써 본인의 역할인 견제와 감시 기능을 뛰어넘어 시의 중요한 정책과 사업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 시민의 의견이 폭넓게 수렴해 시민적 합의와 절차적 타당성, 사업의 투명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종행기자

광주매일 TV kjdaily.com (평일뉴스)

호남권 스타트업 지원 펀드 50억 조성

전남·광주·전북 공동출자

전남도는 6일 “중소벤처기업부의 ‘한국모태펀드 출자사업 수시 공모’에 광주·전북도와 함께 공동 출자한 펀드 ‘호남 엔젤투자허브 개인투자조합’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호남권 지자체가 결성해 만든 개인투자조합(펀드)은 3개 광역자치단체가 20억원을, 공모 선정에 따라 한국모태펀드에서 30억원을 출자해 총 50억원을 조성한다.

공동 운용사는 한국엔젤투자협회,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가 맡아

전문투자기관 역할을 한다. 이중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난해 4월 지역에서 최초로 ‘전문 창업기획자’로 등록해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해 투자하고 있다.

투자 대상은 호남지역 우수 스타트업이다. 투자 방식은 벤처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고 주식·채권 등으로 대가를 받는 투자 형태인 ‘엔젤투자’로 진행된다.

전남도는 조성 펀드가 창업 초기 자금 부족으로 어려운 지역 스타트업의 사업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운용 기간은 투자 기간 3년, 회수 기간 2년으로 총 5년이며 조합 결성은 올해 말까지 마칠 계획이다. /김재정기자

화순군 청년센터 ‘청춘들락’ 문 열었다

취창업·문화예술 공연 지원

전남도와 행정안전부의 지원을 받아 설립된 화순군 청년센터 ‘청춘들락’이 6일 개소식을 갖고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

개소식에는 문금주 전남도 행정부지사과 김학홍 행안부 지역혁신정책관, 구충곤 화순군수, 구복규 도의회 부의장, 문행주 도의원, 화순군 청년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테이프 커팅으로 시작한 이날 행사는 ‘청춘들락’ 시설 관람, 청년단체 축하공연, 기념촬영, 소통간담회, 부대행사 순으로 진행했다. ‘청년센터에 바란다, 나도 청년’ 코너에서 인터뷰 영상을 상영하고 화순군 청년단체 ‘화합’ 관악 축하공연이 이어졌다. 화순군 농·특산 가공품을 소개하는 청년 유튜브 라이브 방송 부대행사도 열려 눈길을 끌었다.

‘청춘들락’은 총사업비 18억5천만원

을 들어 행정안전부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사업’ 및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연 면적 498.13㎡, 지상 3층 규모로 화순읍에 조성됐다.

청년 활동 공간이자 청년 정책 정보 플랫폼 역할을 한다. 취·창업 활동을 지원하는 공유주방&카페,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 다목적실, 미디어공작소, 교육실, 회의실, 1인 편집실 등을 갖췄다.

특히 ▲청년 취·창업 지원 ▲문화예술, 공연 지원 ▲청년 커뮤니티 플랫폼 지원 ▲청년 정책 협의체 운영 등 다양한 기능을 한다. 평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문금주 부지사는 “청춘들락에서 청년이 꿈과 끼를 맘껏 펼치고 젊음을 만끽할 수 있도록 화순군 청년들이 항상 응원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광주시, 시민예술인재 아카데미 17일 개강

광주시는 오는 17일부터 예술인재 발굴 및 육성의 초석이 될 ‘광주시민예술인재아카데미’를 전일빌딩245 다목적강당에서 개강한다.

이번 아카데미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재교육원 광주캠퍼스 개원을 앞두고 지역 내 예술영재를 발굴하고 시민 예술 애호가들의 문화예술 역량 강화, 예술향유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국내 최고의 예술계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서 21세기 인공지능시대 예술의 의미와 역할, 전문 예술인으로 살아가기 등 예술·철학적 질문들을 접한다.

특히 미래 예술인으로서의 자긍심과 꿈을 키워주는 멘토링 프로그램도 구성돼 있어 예술영재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아카데미로, 전문 예술인을 꿈꾸는 학생

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사 겸 멘토로 나선 예술인들은 한국 공연예술분야에서 최고로 꼽히는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를 비롯해 박재홍 발레협회 회장 등 각계 인사들로 포진했다.

강의는 전문강좌를 고대하는 지역 예술계의 기대를 담아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발레·국악·음악·미술 등 4개 분야, 총 10강으로 진행된다.

교육생은 코로나19 방역에 대응하기 위해 학생부 30명과 일반부 20명 등 총 50명을 엄선하며, 현장에 참여하지 못한 이들은 유튜브 생중계 채널 ‘2021광주시민예술인재아카데미’로 강의를 접할 수 있다. /이종행기자

지방자치 30년, 주민자치 발전의 방향과 과제

제9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 대토론회

10월 29일(금) 오후 3시 광주YMCA 2층 무진관

1991년 부활한 지방자치제 시행 30주년을 맞아 주민자치의 현 주소와 미래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립니다.

광주매일신문은 시민단체인 품질자치주민자치시민들, 통신문인 뉴스1과 공동으로 오는 29일 광주YMCA에서 ‘제9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 주민자치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자치 전문가들이 발표자 및 토론자로 참여해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우리 주민자치의 성과와 과제를 점검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민주도시 광주의 주민자치와 생활민주주의 육성 방안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이번 대토론회에 광주·전남 시·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 기조발표 : 김필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사
- 주제발표 : 서순복 조선대 교수, 임우진 민선6기 광주 서구청장
- 토론 : △ 사회 이용연 서영대 부총장
 - △ 토론자 ▲ 김재철 광주전남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박상원 광주매일신문 상무이사 ▲ 안병락 광주시 지산2동 주민자치위원장

- ▲ 김일웅 광주시자치행정국장
- ▲ 기우식 참여자치21 사무처장

| 주최 | 광주매일신문, 품질자치시민들, 뉴스1 | 주관 | 품질자치시민들 | 문의 | 광주매일신문 사업본부(062)650-2078